

격려사

불교포럼 회원 여러분!

오늘 이 뜻 깊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불교포럼은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지도자로 활동하시는 불제자들의 모임으로 이제 어느덧 창립 2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활발한 활동을 펼쳐주신 회원 여러분과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주신 집행부에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상임대표를 맡아 지난 2년간 헌신적으로 일해주신 김동건 대표님에게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첫 시작부터 이렇게 안정적이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 한국불교의 밝은 내일을 보는 것 같아 마음 기쁘고 또한 즐겁습니다.

불제자 여러분!

전생의 큰 복덕과 인연으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면면불조와 전대의 조사들, 수많은 선지식 도반들이 다녀간 이후에 이 땅의 불교는 참람되어 스러져 오래도록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왕조 5백년과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도 한국불교는 부처님의 종지를 잘 지켜 이어왔으며, 독특한 수행문화를 전승해 오고 있습니다. 역사의 오랜 고난으로 인한 인적 기반의 훼손이 비록 크다고 하나, 우리는 이제 ‘자성과 쇄신의 결사’로 종단의 빛을 더욱 밝히고, ‘부처로 살자’는 실천윤리로 우리 사는 세상을 보다 맑고 향기롭게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에, 우리는 지금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어찌 전생의 좋은 인연이 없다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불교의 새로운 발흥이 여러분과 함께 시작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불교의 가능성을 크게 본 것은 동양보다는 오히려 서양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불교의 발

견’을 서양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로 손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불교는 종교의 영역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다양한 가치를 서양인들에게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철학, 사상, 과학, 실천윤리 등 방대하고 심오한 문화콘텐츠를 만나게 되면서 기독교에 기반한 기존의 틀이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아메리카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대화에 앞섬으로 해서 동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적인 지위에 있었던 서양이 이제는 오히려 동양문화의 핵심인 불교를 근대 극복의 대안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불제자로서의 주인의식과 자긍심과 실행력만 있으면 우리가 이제 세상의 중심이 되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대자비 원력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문화시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포럼 회원 여러분!

승가의 발전과 함께 재가의 발전만이 만사형통의 지름길입니다. 그 옛날 한국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헌신하셨던 명철석학 탄허스님께서는 ‘기와불사보다는 인재불사’라 하셨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한 데 모여 힘을 합치는 것만이 오늘날 한국불교가 되사는 길이요 불교문화가 융성하는 길인 것입니다. 역사의 이러한 책무와 불제자로서의 소임이 바로 우리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도자이신 여러분들께서 먼저 손에 손을 잡고 우리들 삶의 대낮을 더욱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신실한 선우들이, 보다 자애로운 도반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여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이 바로 대낮보다 환한 불국정토가 될 것이요, 그때에 이르러 극락왕생의 찬란한 순간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들 모두가 붓다임을 바로 봅시다. 감사합니다.

불기2558년 2월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